

〈기적을 불러온 큰 믿음 - 중풍병자와 네 친구〉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2/18(주일) 설교 내용

마가복음 2:1-5

1.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에 따르는 시간적, 물질적, 재능적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었던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적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원들에게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며..

내가 정말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예배나 목장, 각종 봉사와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꼭 눈에 보여지는 이윤이나 혜택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자기 만족>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팀(찬양대)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음악적 만족 때문일 수도 있고,
목자나 여러 리더의 자리에 섬기는 것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역의 영역에 봉사하시는 목자분들께서 먼저 정직하게 나누어 주신다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가 중풍병자라면, 나를 들것에 들고 기꺼이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데리고 갈,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는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믿음을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을 언제나 보여지고 증명되어 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보이라!" 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네,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은 보여지고, 증명되어 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동역자, 예배, 봉사와 헌신 등)